

보도시점 2026. 10. 21.(수) 12:00 (2026. 10. 22(목) 조간)

노동시간 단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위라벨+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
- 부산 2개 기업 현장 방문으로 생산성 향상 사례 공유 및 확산방안 논의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0월 21일(수) 부산에 위치한 (주)영창에코를 방문하여, 「위라벨+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에 출범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의 생산성 향상 캠페인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해 성공적인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평가받는 부산 지역 2개 기업의 사례를 확인하고, 타 지역·업종으로 확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사업주단체가 함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생산성 향상 지원('26.5.6. 발대식 개최)

① [(주)영창에코] “일하는 방식 변화+제조 과정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부산 사상구의 (주)영창에코(제조업, 31명)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신발 인솔(깔창)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성수기에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개선과 숙련 인력 유지를 위해 「위라벨+4.5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하는 기업 지원('26년 347개소 참여)

전 직원 노동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줄이면서(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① 병목공정에 다기능공을 배치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② 제품 생산계획·실행 시스템(ERP·MES)을 도입해 제조 과정을 혁신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인솔(깔창) 1만 족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50시간→ 46시간) 8% 단축) 성과를 거두었다.

② [(주)디아이앤씨] “업무 자동화+근로시간 관리 정비”로 효율성 제고

부산 해운대구의 (주)디아이앤씨(정보통신업, 58명)는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로 업무 특성상 잦은 연장·휴일근로로 핵심 인력이 유출되면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워라벨+4.5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 35시간제(매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점심 휴게시간 15분 확대)를 도입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소코자 ①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②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해 근로시간 관리와 채용제도도 정비했다. 또한 업무 쏠림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을 3명 충원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 단축 후에도 유지보수 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됐고, 월간 보고(증빙)자료 작성 소요시간은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사례 발표 뒤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선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와 애로 및 대응에 대해 질의 응답했고, 국내외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며, 오늘 발표된 사례가 다른 지역·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부산의 두 기업 사례는 일하는 방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오늘 발표된 사례가 널리 공유·전파되어, 많은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동참하고 또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워라벨+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개요

2. 「워라벨+4.5 프로젝트」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기업 소개

담당 부서	일터혁신지원팀	책임자	팀 장	홍제희 (02-6021-1083)
		담당자	선임전문위원	한광규 (02-6021-1229)



붙임 1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개요

□ 개요

- (일시) '26.10.21.(수) 10:00~12:00
- (장소) (주)영창에코(부산 사상구 소재, 신발제조, 31명)
- (내용) 부산지역 워라밸+4.5 승인기업 현황 및 기업 사례 발표
- (참석) 운영위 위원, 기업 관계자 및 지역 사업주 단체 등

<주요 참석자>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2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주단체
3	권진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4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5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장	-
6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

□ 세부 일정

구분	회의내용	비고
10:00~10:10	개최 및 참석자 소개	한진선 과장
	인사말씀	참석자
10:10~10:20	워라밸+4.5 프로젝트 부산지역 승인기업 현황 및 기업사례	부산경총
10:20~10:40	워라밸+4.5프로젝트 도입 기업 사례 ①발표	기업(대표, 노동자)
10:40~11:00	워라밸+4.5프로젝트 도입 기업 사례 ②발표	기업(대표, 노동자)
11:00~12:00	기업사례를 통한 주요성과 및 현장 도입방안 논의	전체

* 상기 일정은 회의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영창에코

업종	제조업
설립연도	2007년
근로자수	31명
소재지	부산 사상

△[배경] 나이키(NIKE) 등 글로벌 브랜드에 인솔을 공급하는 수출 제조 기업으로, 성수기 장시간 근로 개선과 숙련 인력 유지가 과제

* 25년 월평균 실근로시간 151시간, 최고 196시간(1월)으로 시기별 편차가 큼

△[노동시간 단축: 월 1회 유급휴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 전 직원(31명) 주 평균 2시간 단축

* 셋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공가와 겹치면 다음 주 금요일로 순연해 휴식권을 일관되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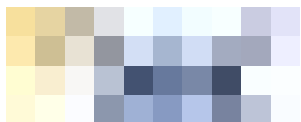
- 설비 예열 등 공장 특성상 분할 단축 대신 월 1일 휴무를 노사가 선택, 다기능 작업자 양성·ERP·MES 활용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생산성 향상 사례] 주문별 생산계획 사전 검토로 금형 교체를 줄이고 병목 공정에 다기능 작업자를 배치해 생산성 8% 향상

* 인솔 1만 족 생산 시 소요시간: [이전] 50시간 → [이후] 46시간

- 재고관리 파일 일원화로 보전 재고 활용을 높여 중복 생산을 줄이고, 사무직은 관리 파일 자동화로 반복 입력 업무 축소

△[기대효과] 정기 휴무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글로벌 납품 경쟁력 강화



[주]디아이앤씨

업종	정보통신업
설립연도	1999년
근로자수	58명
소재지	부산 해운대

△[배경] IT 인프라 유지보수 특성상 야간 작업·긴급 장애 대응으로 연장·휴일근로가 잦고,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 어려움

* 25년 부산 순유출 인구 12,181명, 전출 주요 사유는 직업 (25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제]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단축(주 40시간 → 35시간), 점심 휴게 15분 확대

- 4개 부서 33명 대상, 시차출퇴근·반반차 등 기존 유연근무제도와 연계하고 연장·휴일근로 시 유급 보상휴가 부여

△[생산성 향상 사례]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과 전자결재 도입으로 반복 업무를 줄여 단축 후에도 서비스 수준 유지

* 공공기관 월별 보고서 증빙자료 작성: [이전] 건당 8시간 → [이후] 2시간, 결재 소요: [이전] 2.5일 → [이후] 0.5일

- 업무 쏠림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근로시간 관리·채용제도 정비

△[기대효과] 워라밸 개선과 지원금 재투자(복지포인트 확대 등)로 지역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